

# 전남교육청, 3월은 담임교사 출장없는 달

### 교사들 행정업무 해방... 수업·학생 생활지도에 중점 학기초 혼란·수업 부실 막고 '교사 본연의 업무' 집중

전남도교육청이 새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는 3월 한 달간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2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교육청은 올 3월 한 달을 '담임교사 출장 없는 달'로 정했다.

학기초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도내 전체 학교에 내려보내며 '최소한 3월 한 달 만이라도 담임교사들이 출장이나 행정업무에 얽매이지 않고 본연의

직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게 각 학교가 각별히 배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또한 올 3월부터 매주 수요일은 공문·출장 없는 날로 정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은 인사관련 서류, 시급한 예산·안전 관련 업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선 학교와 교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거나 출장을 요청하는 것을 최대한 삼가기로 했다.

연중 시행되는 '수요일 공문·출장 없는 날' 역시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자, 교사 업무 정상화로 받아들여진다.

새 학기를 앞두고 있다라 발표되는 교사 행정업무 경감 내지 교사 업무 정상화 정책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지난해 6·13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는 물론 취임 이후 줄곧 교육 및 교사 업무의 본질을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라고 밝히면서 학교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데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새 학기 준비 부족에 따른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 차질, 수업 부실을 막기 위한 조치로 '새 학년 집중준비기간'을 운영한다.

새 학기가 되면 학교는 정기 인사발령으로 상당수의 교사가 바뀐데다 연간 교육과

정 운영계획, 상급기관 시책사업 계획 수립 등의 과중한 업무 부담 때문에 교사들이 온전하게 수업과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가 없다.

도교육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새 학년 집중준비기간'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유·초·중·고등학교는 지난 2월 중순부터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일정을 잡아 '새 학년 집중준비기간'을 진행하고 있다. 각 학교는 이 기간 동안 3월 개학 이전에 새 학년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새 학년 집중준비기간'은 교직원 만남의 날, 학년 배정 및 업무 분장, 새 학년 교육계획 및 교육활동 공동수립 등의 내용으로 운영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호남대 보건계열 국가시험 합격률 높다

### 간호학과 4년·응급구조학과 3년연속 100% 6개 학과 평균 94%...전국평균 83.9% 상회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 보건계열 6개 학과가 최근 실시된 국가시험에서 높은 합격률을 기록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간호학과와 응급구조학과 응시생 전원인 4년 연속 100% 합격이라는 발군의 실력으로 명품 학교임을 입증했다.

간호학과는 지난 1월 실시된 '제59회 간호사 국가시험' (전국 평균 합격률 96.4%)에 응시자 81명 전원이 합격, '4년 연속 국가시험 100%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응급구조학과도 지난 12월 치러진 국가시험 (전국평균 합격률 88.3%)에 응시자 24명 전원이 합격, '3년 연속 100%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치위생학과는 2019년도 제46회 치과 위생사 국가시험에서 97.6%의 합격률

을, 2015년부터 3년 연속 100% 합격률을 보였던 작업치료학과는 '제46회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에서 94.6%의 합격률을 보였다. 또한 물리치료학과는 93.8%의 합격률을, 언어치료학과는 81.8%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호남대학교 보건계열 6개 학과들의 국가시험 평균 합격률은 94%로, 전국 평균 합격률 83.9%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계열 학과들이 이처럼 국가시험에서 높은 합격률을 보인 것은 국가고시 준비를 위해 특강과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등 학교차원에서 다양한 국가고시 관리 프로그램을 짜임새 있게 진행한 덕분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교수들의 열정적인 지도와 학생들의 노력이 일구어낸 결실로 분석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2021년 담양 봉산면에 민간위탁형 대안학교 설립 고교 학력 인정

오는 2021년 3월 담양군 봉산면에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가 문을 연다.

공립 대안학교는 학교 부적응·학업중단 학생 45명을 정원으로 하는 기숙형 고교로 학력이 인정된다.

2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남도립학교 설립 동의안이 지난 18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가 이뤄진 만큼 26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도교육청이 총 77억원을 투입해 설립을 추진하는 대안학교는 민간위탁형으로 공립은 전남 최초다.



지난 21·22일 나주 빛가람 호텔에서 개최한 광주대학교 LINC+사업단의 '2차년도 LINC+사업 성과 교류회' (광주대 제공)

## 광주대 '2차년도 LINC+사업 성과 교류회' 성료

성과 극대화 방안 심층 토론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LINC+사업단(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은 지난 21·22일 양일간 나주 빛가람 호텔에서 '2차년도 LINC+사업 성과 교류회'를 개최했다.

교류회 첫날에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의 1단계(2017-2018년) 성과를 평가하고, 4개의 사회맞춤형학과 사업보고 및 우수성과 발표, LINC+참여기업의 성과 발표, 지역 우수기업 발굴 및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날에는 2단계(2019-2021년) 사업 추진 기반방향 및 교육과정 내실화, 지역

우수기업 발굴 및 연계협력 강화 등의 운영 방향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2단계에 맞아 자립화·지속가능성 중심의 사업관리 체계로 전환, 대학 내 사회맞춤형학과 확산등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 극대화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과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대 수의과대학 수의사 국가시험 3년 연속 100% 합격

전남대학교가 수의사 국가시험을 3년 연속 100% 합격하는 쾌거를 거뒀다.

전남대 수의과대학(학장 배준식)은 지난 1월 시행된 '제63회 수의사 국가시험'에서 성태훈 학생을 비롯한 응시생 45명 전원 합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국가시험의 전체 합격률은 97.1%인 반면, 응시생 전원이 합격한 대학은 전남대를 비롯해 전북대, 충북대 등

3개 대학에 불과하다. 특히 전남대는 61회 시험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응시생 전원이 합격하는 쾌거를 거뒀다.

배준식 학장은 "응시 학생들 모두가 노력한 덕분이며, 학생회 차원의 응원과 교직원들의 뒷받침에 힘입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이런 성과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조선이공대 '가족회사 교류회' 개최

조선이공대학교(총장 조순계)가 최근 광주리마호텔에서 '가족회사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조선이공대학교 조순계 총장, 특성화학과 교원, 학생취업센터 관계자, ㈜유비플러스 백승민 대표를 비롯한 가족회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프리마모터스, 르노삼성자동차 광산정비사업소(주), ㈜유탑건설 등 2018학년도 신규 협약업체 7개 기업에 대한 가족회사 명판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조선이공대는 대학과 산업체 간 안정적인 장기적인 관계 발전, 산학협력 상

생 네트워크 구축, NCS기반 관련 산업체 및 공공기관 협약을 지원하고 지난 1994년 제1회 환경건설(주)와의 최초 협약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414개 업체와 협약을 맺고 교류하고 있다.

조순계 조선이공대학교 총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산학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 대학은 산학협력을 위해 산학공동기술개발, 기술지도, 자문활동, 재직자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협력 촉진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새로운 방식의 독창적인 백내장 수술

# 젯토(ZEPTO) 노안·백내장

정확 신속 안전

-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 삽입 위해 수정체 전방 절개 필요
- 기존엔 칼을 사용해 수기로 하던 전방절개를 젯토 장비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제거
- 미세전류를 이용해 360도 원형의 완벽한 수정체 전방 절개 가능
- 형상기억합금으로 주변 세포에 열 손상을 최소화하고전방 절개면 인장 강도 높여 안전
- 수기로 제거시 시간이 걸릴수도 있지만 젯토 사용시 수술 시간 현격히 단축
- 동공이 작거나, 백내장 진행이 심하고, 각막이 혼탁해도 쉽게 수술 가능
- 완벽한 전방 절개로 더욱 안전하게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1566-9988

9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착한보청기협동조합

# 보청기

##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